

1. 합격 정보

1 차 시험 점수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법	민집법, 상업등기법	부등법, 공탁법
	22 / 52	72 / 16	62 / 22	40 / 34
2 차 시험 점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소법, 민사사건서류	부등법, 등기신청서류
	46.65	24.5 / 35.5	36.5 / 19.75	42 / 19.2

2. 합격자 학습 정보

1차 시험 응시 횟수	(1) 회
2차 시험 응시 횟수	(1) 회
총 수험 기간	(17) 개월
1차 시험 준비 방법 (중복 선택 가능)	인강
2차 시험 준비 방법 (중복 선택 가능)	인강
법무사단기 수강 이력 여부	있음

3. 합격 후기

- 어떻게 학습하셨는지 주제별로 작성해 주세요! (글자 수 제한 없음)
- **주제1~5 모두 작성해주세요!**

주제1. 수험 시작 동기와 수험 기간

- 부동산 업계에서 공인회계사로 긴 시간을 근무해왔습니다. 나름 전문성을 인정받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들을 다수 담당해오면서 법적 절차나 법률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느껴왔고, 이러한 부분에서 법무사와 같은 집행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 제가 직접 그러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되는 것이 이 업계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추후에 제가 직장에서 은퇴하게 되더라도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2년 전에 공인중개사도 취득하였으나, 그것 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법률가가 되어 전문가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기 위하여 법무사를 23.6월에 공부 시작하였고, 24.9월에 처음 응시한 1차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합격한 후, 직장에 재직하면서 주경야독으로 지속적으로 공부한 끝에 2달만에 응시한 2차 시험에서도 합격하게 되어 1년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수험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제2. 나만의 학습 방법

- 저의 직업이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를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직장을 그만둘 시 잃게 되는 기회비용 대비 설령 합격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이므로, 당연히 직장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 현실적으로 직장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문제됩니다. 저는 시간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법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무사단기

확보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려했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첫 번째로, 시간의 경우 퇴근 후의 시간 및 새벽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강의는 꼭 들었습니다. 학원의 커리큘럼 중 1~3순환 및 2차 동차반의 경우는 빠지지 않고 전부 다 배속을 이용해서라도 듣고, 제일 큰 것은 밀리지 않기 위해 주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일과중에 업무가 많아서 평일에 듣지 못한 부분은 반드시 그 주 주말내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 두 번째로, 공부는 손으로 하는 것이지 머리로 하지 않는다는 제가 다른 시험에서 공부할 때부터 항상 정해놓은 철칙입니다. 읽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풀어보고 이해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고, 다르게 말하면 1순환때는 모르더라도 그냥 넘어가고 그것을 답하게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그냥 넘겼지만, 2순환부터는 강의 설명전에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고 재생하면서 문제를 푼 것을 설명들었고, 틀린 지문 및 이해하지 못한 지문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이해도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학원에서 수행하는 전범위 모의고사는 반드시 풀어보고, 틀린 문제는 체크해서 왜 오답을 체크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1차 시험 당일날 풀었던 모의고사 외에 일절 다른 자료를 들고가지 않았습니다.
- 2차 시험의 경우는, 두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직장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진행해야 했기에 동차로 끝낸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단지 일단 끝까지 다 쓰고 내년 재시를 준비하자는 생각으로 시험에 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차반 강의를 들었고, 모의고사를 직접 쳐볼 시간은 없었기에 일부 과목의 3순환은 모범답안을 보고 실제 답안지에 현출해낼 수 있는 분량으로 필사하는 식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것을 외우는 것은 두달이라는 시간안에는 불가능한지라, 중요한 판례의 키워드 단어라도 확실하게 외우고,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키워드라도 꺼내쓸 수 있는걸 목표로 했습니다.
- 또한, 최대한 짧은 시간안에 주요한 주제라도 확실하게 쟁점을 파악하자는 생각으로 전과목의 마무리 특강을 수강하였습니다. 이를 시험 당일까지 무한 반복하면서 중요하게 잡고 넘어간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익혀서 시험장에 들어가려고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전략이 되어서 행운이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주제3. 과목별 학습 방법 및 고득점 팁 & 과목별 법무사단기 강의 추천

1차 :

- 일단 저는 헌법(11/20)과 부동산등기법(20/30)을 빼고는 전 과목을 2~4개 범위내에서 틀렸기 때문에 특별히 고득점한 과목과 고득점하지 못한 과목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과목에 힘을 들이고 어떤 과목에 힘을 빼는 것은 필요하지만, 가족관계법 같이 10문제 밖에 되지 않는 과목이라 한들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가족관계법이나, 상업등기법 같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마이너 과목은 기본적으로 기출 위주로 60%만 확실하게 맞춘다는 마인드로 발목잡히지 않는 것을 목표로 접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투입은 줄이되, 최소한 법무사 10년치 기출만큼은 보고가면 혹시 다른 과목에서 점수가 부족할 때 마이너 과목으로 인해 발목잡히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헌법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기출 비중이 작으니, 수업중에 제공해주는 자료에 집중하고 수업시간 외에는 추가적인 투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2차에 연계성이 없는 과목에 대해서는 60%를 맞추는 것을 목표로 가져가는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법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무사단기

- 그에 비해 주요 4법과 고득점에 용이한 공탁법은 최대한 점수를 가져가야하고, 그 중 특히 민법과 부등법은 현실적으로 그 해 2차 동차시험 점수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너한 3과목은 수업시간에 공부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되, 나머지 과목은 직장병행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내에서 짬짬히 낼수 있는 틈에라도 계속 문제를 풀어보셔야 합니다.

2차 :

- 사실 2차의 경우는 위에 적은대로 동차반을 수강하고, 3순환 모의고사 중 일부를 필사해보고, 마무리 특강을 모두 듣고 시험 당일 새벽까지 반복해서 읽은 것 외에는 학습 방법이 없고,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 큰 팁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동차에 임하는 입장에서 전략을 설명드리자면 상대적으로 재시생과 점수 유사하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과목을 현실적으로 민법, 부등법, 민사서류, 등기서류 네 과목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전략과목으로 삼아 여기서 만큼은 비슷하게 점수를 뽑는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 1) 민법은 워낙 방대해서 마스터가 불가능한 과목이기에 정석적인 매년 출제하는 전통적 주제에 대해서는 동차생이 불리하지만, 반면에 오히려 넓은 범위의 판례를 봐온 동차생은 불의타에 대한 대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2) 부등법은 다른 과목과 목차잡는 방법부터 다른 철저한 절차법이라 모두에게 기회이자 모두가 발목잡히는 과목이지만, 법전에서 써낼수 있는 내용이 모든 과목중 가장 많은 만큼 법전에 있는 내용에 일부 예규선례를 꺼내쓸수만 있으면 충분히 동차생도 점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 민사서류 과목은 어차피 재시생도 많은 시간 투자가 어렵고, 청구취지 작성법과 같은 필수적 암기사항만 달달 외우고나면 나머지 민법만 남는데, 청구원인은 각 쟁점별로 한두줄만 쓰면 되므로 판례의 결론만 알면 돼서 암기부담이 덜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4) 등기서류 과목은 사안별 필수 첨부서류가 핵심인데, 이 부분은 1차 동안 공부한 지식과 법전을 통해 어지간해선 다 찾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런 관점에서 민사서류와 등기서류의 경우 먼저 풀었고, 어차피 민사소송법이나 등기법의 경우 동차생의 한계상 아무리 길게 써도 70분 이상을 투자할 만큼 내용을 쓰기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과감하게 민사서류와 등기서류에 45분 이상씩을 투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각 19점 이상이 나와서 성공했다고 판단합니다.
- 그리고 나머지 3과목인 민소, 형법, 형소는 처음 보는 상황이므로 강사가 찍어준 내용만 가지고 과락만 어떻게든 피해보자고 생각했고, 올해의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대부분의 학원 강사들이 예측한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판례들이 전부 문제로 나온 덕분에, 형사소송법을 고작 일주일 남짓 공부하고도 제가 응시한 모든 과목중 가장 고득점(35.5점)을 받을수 있게 되었고, 합격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제4. 시기별 학습 방법 및 고득점 팁 & 시기별 법무사단기 강의 추천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법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무사단기

1차 :

- 이론 강의 : 강의를 듣고, 길어도 하루에 30분을 넘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습을 한다. 이것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비법대 출신이기 때문에 100%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니다. 1순환은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내구도를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므로, 여기에서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의는 절대 빠지지 않고 밀리지 않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밀리면 기존에 들었던 것도 기억이 안 날뿐더러 밀려서 쌓인 강의를 시간내에 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문제 풀이 : 강의 전후로 그날 수업진도에 맞게 문제를 풀어보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수업 진도에 맞게 스캔한 문제집을 출퇴근시간이나 휴식시간에 미리 풀어보고 저녁에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주로 공부를 했고, 이때 까지는 학원 모의고사는 따로 풀지 않았습니니다. 다른 과목을 병행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론 직장병행에서는 불가능하기에, 수업시간에 강의하는 것을 밀리지 않고 풀어 보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 최종 정리 : 이때부터는 강의시간 외에 매주 1회씩 전범위 모의고사를 다른 학원 모의고사까지 전부 구해와서 주말마다 시간을 체크하며 풀어왔고, 10년치 법무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병행했습니다. 기출 문제와 모의고사의 중요성은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하고, 기본서를 읽어볼 시간에 문제를 하나라도 더 풀어봐야 합니다. 이 시점에는 문제의 설명을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한해서만 기본서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마지막 2~3주 : 기존에 풀었던 문제인 전범위 모의고사 및 10년치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 보고 틀렸던 부분을 안틀리도록 체크했습니다. 또한, 원데이 특강이 있으면 들으면서 최신 판례 등의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쟁점은 일부 체크했습니다.

2차 :

- 동차 기간이 두달 남짓에 불과하므로 크게 드릴만한 팁은 없습니다. 동차반 강의만 들은 상태로 이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정말 어떻게든 답안지를 쓸수만 있게 만드는 강의에 불과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동차 강의만 듣는다고 합격이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고, 어떠한 압박없이 시험에 응시하고 점수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는 동차때나 누릴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전과목 동차반을 듣고, 뭐라도 쓸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되는 것을 목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만 재시 수험기간에 조금이라도 아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고 한두달이라도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저는 전업이 아니라 직장 병행인지라 평일에 하루 4~5시간 이상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실천하진 못했습니다만, 만약 전업이라면 2,3순환 모의고사는 전부 한번씩 제 스타일로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필사해보고 그 노트를 정리해서 시험장에 들어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의 부족으로 민법, 민소법, 부등법의 3순환만 한번씩 필사해 볼 수 있었고, 형법은 동차반 및 원데이 특강 인쇄물, 형소법은 암기장 하나만 믿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니다.
- 민사서류의 경우는 동차반 족지시험 자료에 포함된 청구취지 작성법을 중점적으로 암기했고, 등기 서류의 경우는 유소정 법무사님의 강의에서 나오는 그림으로 필수 서류 리스트를 정리하는 방식이 암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법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무사단기

주제5. 후배 예비 법무사들을 위한 학습 팁 및 하고 싶은 말

- 1년 반 조금 안되는 짧은 시간안에 최종 합격의 영광을 안게 되어서 기쁘고, 힘든 공부에 또 다시 마침표를 찍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저를 믿어주고, 퇴근 이후에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저의 배우자와 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시험은 오르막길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점점 가파르고 힘들어지지만, 그 고통을 넘어서면 합격이라는 달콤한 정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험기간 치고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휴일도 연휴도 쉬지 않고 저를 스스로 채찍질한 결과, 합격이라는 과실을 제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빠르게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 마지막으로 팁을 남기자면, 이 시험은 서술형이더라도 사실관계가 과거의 판례와 동일하게 주어지고, 대법원의 판례를 얼마나 동일하게 현출해내느냐를 묻는 시험입니다. '법학'에 빠져서 학설이나 판례를 어떻게 해석해야하나에 대한 고민은 접어두고, 철저하게 수험생으로서 문제 제출한 법원 출제자의 관점에서, 판례의 중요한 키워드를 어떻게 똑같이 가져올 수 있나, 이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좀더 효과적인 관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과, 노력한 만큼의 결과와, 약간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작성해 주신 합격 수기는 2025년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예비법무사님들을 위하여 활용될 예정입니다.